

저소득층 당뇨병 검사로 건강관리에 기여 사회복지법인 세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세림복지재단(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소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다. 세림은 그중에서도 특히 성인병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의 당뇨병 관리를 위한 건강검사를 2년째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세림의 하는 일을 취재해 봤다.

• 국민건강에 기여할 의미있는 일 찾다가 설립

「저희 재단이 생긴 것은 '8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지 2년정도 된거지요. 미원그룹 창업주이신 임대홍 명예 회장님께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을 찾으시다가, 성인병, 당뇨병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셨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림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를 文姓源 사무장(58세)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 세림의 운영은 미원그룹 내의 회사들이 일정 비율을 출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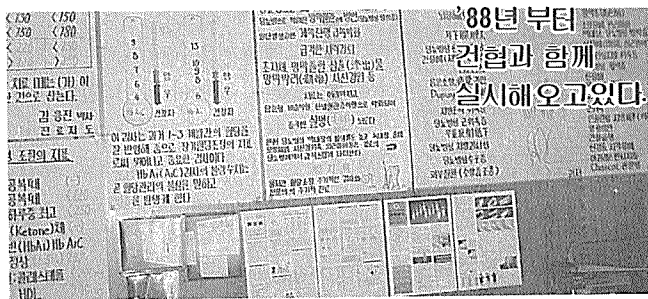
• 지난해 총 13여개 복지시설에 지원

세림이 하는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회 복지사업의 학술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급, 저소득층의 당뇨병 등 성인병환자에 관한 지원 및 연구, 각종 성인병 계몽 자료의 발간 등이다.

작년의 경우 세림은, 정읍 애육원, 충남 보령원, 풍익 보육원, 경남 신애원 등을 비롯한 총 13여개의 시설에 지원금과 필요물품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세림은 당뇨, 성인병 환자에 대한 식단 모형 제공, 소아 당뇨 캠프 지원 등의 사업과 저소득층 당뇨병 검사를 계획 추진해 왔으며, 그외에도 당뇨병 계몽을 위한 한화책 등을 제작·보급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위한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림의 사업 중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당뇨병검사로 지난



• 늦도록 빨래하는 보모의 뒷모습 보고 후에 세탁기 기증

「일을 하면서 힘들때도 많지만 잊을 수 없는 보람있었던 일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고아원에 대형 세탁기를 지원했을 때입니다. 작년에 경남 합천에 있는 “애육원”이라는 곳을 밤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낮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업무도 못낸 빨래를 한밤중에 하고 있는 보모들의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곳에 세탁기가 설치된 후 보모들의 일이 한결 쉬워졌다는 얘기를 전해듣고는 정말 기뻐했습니다.」라면서 文사무장은 그러나 그런 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밖에 지나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기도.

세림은 각종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자금 및 물품지원, 당뇨병관리, 계몽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 저소득층주민 당뇨 검사

세림의 사업 중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당뇨병검사이다.

세림은 지난 '88년 11월부터 건협과 함께 당뇨병 무료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복지사업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성인병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더구나 건강검사의 기회가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요.』라며, 文사무장은 취지를 밝힌다.

그는 이 사업을 건협과 함께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개인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으려고 건협 서울지부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협회의 몇몇 분을 만나 국민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 동기였습니다. 특히 전국 규모의 기구인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당뇨병 검사사업과 건협의 기능이 맞아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88년 11월부터 건협과 세림은 저소득층 주민 당뇨병검사를 시작했고 이후 2달 동안 2만여명을 검사해 내었다.

『검사를 해오면서 안타까운 점은, 피검사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문제가 걸려 있어 검진동원이 곤란한 때가 많다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좋겠습니다.』 건협의 윤희동 사업계장은 검진과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조금이나마 그들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인다.

• 미래의 건강관리 위해 소아당뇨 캠프도 지원

당뇨병 관리를 위해 세림이 하는 중요한 일 중의 또 하나가 “소아 당뇨 캠프”에 대한 지원이다.

『여름휴가동안 4박 5일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갖습니다. 소아당뇨환자 30~40명과 의사·간호사 30~40명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당뇨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물론 의사·



간호사·양호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는 운영경비를 지원합니다. 미래의 건강관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캠프에 대한 설명을 하는 文사무장은,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이렇게 밝힌다.

◦ 당뇨병 교육 전시관 개설 계획

『해야 할 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당뇨병 교육 전시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성인병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해서 누구나 무료로 필요한 건강지식을 전달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당뇨병 전문의 5명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올해부터 구체적인 일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매월 2째주를 당뇨주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쯤에는 우리도 이것을 건협과 세림이 협동으로 실시해서 올바른 당뇨관리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밝히기도.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文사무장은 그동안 착실히 관리를 해온 덕분인지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뇨병은 자체로는 죽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합병증이죠. 제대로 알고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건강을 위해 항상 규칙적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잊지 않는다는 文사무장은 부인과 1남 3녀를 둔 건강한 사람이다.

『당뇨병은 항상 합병증이 문제지요.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라며 당뇨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文燧源사무장